

광남시론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100년전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광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목숨을 초개로 여기고 독립운동을 함차게 펼치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중 스포츠 분야에서 1936년 개최된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과 3위 남승룡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남승룡의 친동생 마라토너 남기룡 선수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필자는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전남 순천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무명의 마라토너 남기룡에 대해 제조명예 보고자 한다. 다음 주 9월 20일 13시에 광주 빚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스포츠 독립운동가 마라토너 남기룡 북토크 콘서트’가 AI 및 국악 컬레베이션으로 화려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 뜻있는 광주시민 및 체계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 같다.

마라토너 남기룡은 1915년 6월 전남 순천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부친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남기룡은 1925년부터 1931년까지 순천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장거리 달리기, 체조, 테니스등 다양한 스포츠 교육을 받고 일본어를 배웠다. 남기룡은 운동을 일제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여 초등학교 시절에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는 씨름을 가장 좋아했다. 당시 남기룡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검도, 유도, 가라데를 가르쳤지만 남기룡은 일본 무술을 배우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었고 대신에 학교교육과정

기고

조익수

좋은인재교육 대표



지난해부터 들려오는 기업들의 상황을 말하는 ‘비상 경영’이라는 단어는 직장인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와 명예 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한다. 유통, 금융, 통신,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임시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직원부터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것은 2024년뿐 아니라 올해도 멈춤 없이 실행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영향으로 인한 직무 수행 방법과 업무 성격의 변화로 조직 구조를 개편하려는 고민까지 기업의 움직임이 분명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매년 연말이 되면 정년퇴직으로 회사 생활이 종료되는 분들만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직장인이라는 필연적으로 겪지 않을까 생각된다.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한 가지 지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기고

김정욱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12·3 내란이 종식되고, 6·3 대선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고장난 행정 체계는 제자리를 되찾고, 멈춰섰던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국가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극우 성향의 일부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이 혼란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건를 앞에는 ‘부정선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 현수막은 ‘내일로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지난 7월 13일부터 도내 곳곳에 게시한 것이며, 제주대학교 등지에도 설치돼 있다. 이 음모론은 단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

광복 80년, 독립운동가 마라토너 남기룡

아닌 씨름을 연습 하는것에 전념했다.

1928년 순천지역에 있는 일본 군대 주둔지에서 열린 마라톤에 참가한 외사촌 정종호 선수를 보면서 남승룡, 남기룡 선수는 마라톤 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선수가 이 대회에서 모든 일본인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한 후에 지역의 영웅이 되는 것을 본 남승룡, 남기룡 선수는 크게 감명을 받았고 마라톤 훈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많은 한국 마라톤 선수들이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여 한국의 민족성을 표출하려고 했고 남승룡, 남기룡 형제 또한 스포츠를 통해 한국의 상황과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33년 형 남승룡은 일본 도쿄로 건너가 메이지 대학교에 입학했다. 1934년 남승룡은 21번째 일본 선수권대회에 참가했으며 1만m 장거리 달리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형인 남승룡이 일본에 있을 동안, 동생 남기룡은 1933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순천에서 훈련했다. 남기룡은 부친의 사업을 도우면서 홀로 연습을 했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프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29분 19초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한 손기정은 월계관으로 일본 국기를 가렸고, 메달 시상식 진행되는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월계관이 없는 남승룡 선수 역시 손기정과 같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두 선수 모두 자신을 일본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손기정은 올림픽 메달 시상식이 끝나고 한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인입니다. 일본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1936년 8월 10일 한국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집에서 뛰어나와 ‘손기정 만세, 남승룡 만세, 조선 만세’를 외쳤다. 다음날 동아일보 이길용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두 선수의 메달 소식을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사진에

서 일본국기를 의도적으로 지워 버렸고 일본정부는 이 사건에 격노하여 이강일 기자와 현진건을 체포하고 감옥에 구금했다. 이렇게 올림픽경기와 스포츠행사는 일본 식민지 통제하에 있던 한국인에게 스포츠를 통해 민족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에 대한 저항과 한국인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

일제 강점기하에 남기룡은 1940년 올림픽까지 일본 마라톤 팀에서 훈련한 유일한 한국선수로 한국인들에게 민족 정체성, 민족 자부심, 사회적 응집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했다. 남기룡 선수가 훈련중 한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한 예로 일상적으로 형 남승룡의 모교 한국 양정고 런닝셔츠를 착용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양정고 팀은 한민족의 스포츠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왜냐하면 양정고 팀은 전국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손기정, 남승룡 선수와 같이 민족주의자이면서 뛰어난 장거리 마라톤 선수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마라톤 훈련중 남기룡의 반항적 태도에 일본 코치와 일본 팀내 룸메이트들은 남기룡을 반역자로 낙인 찍었고 종종 한국인을 경멸하는 단어인 ‘조선징’으로 불렸다. 남기룡은 성실하고 꾸준한 훈련과 넘치는 자신감으로 최고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차세계대전으로 인하여 1940년과 1944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었다. 올림픽에 참가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세계에 드높이려고 했으나 전쟁으로 절절된 어두운 시대는 마라톤 영웅의 도전을 좌절시키고 말았다. 남기룡은 일제강점기 시절 진정한 독립운동가 이면서 무명의 마라토너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역사에서 남기룡과 같은 진정한 애국자 및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해야한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교훈을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

쌓은 경력을 다듬을 솔루션은?

경력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다듬을 것인가’이다.

과거 오랜 경력을 가진 분들의 다른 선택지로 이동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은 옛말이 됐다. 그것은 경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력 기간이라 말하는 그 시점의 시스템, 업무 절차, 수행 방법, 직장 동료, 소비자 등이 경력을 가진 그 이후의 시점과 비교하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의 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채용공고로 나타나게 된다.

채용공고 내용만으로 기재하지 못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채용공고 게재 시점 기준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일과 미래에 주어진 일을 수행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이다. 동일한 경력 또는 유사의 경력자를 선호하는 것이며, 기업의 미래에 예상되는 인력으로 함께 하기 위한 역량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시대에 몇 년의 경력이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경력 기간이 더 가치 있게 평가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잔디가 있는 곳은 일정한 높이로 자라게 되면, 제초 작업을 한다. 보기 좋고, 깨끗하게, 이동에도 지장이 없게. 그리고 그 장소의 활용을 위해 관리한다. 작업이 이뤄진 후 그 인근을 지나가 본 적이 있다면, 싯탄한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말끔히 다듬어져 짧아진 잔디 주변에서 말을

수 있는 푸르른 냄새가 나의 기분을 좋게 한다.

제초 작업한 잔디처럼 경력은 이제 쌓아두지 말고, 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경력을 쌓는 과정의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다. 그 의미는 신체적 나이가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효성을 높이는 경력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교육받았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투자한 결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했다. 이 과정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 도전해 그 성과로 특정 자격을 보유하고 확인시켜 줬다. 그 이후에는 실습과 다양한 경험과 실행을 통해 입사 지원한 현장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하게 했다.

그 결과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그리고 근무 연수에 따라 경력을 갖게 된 것이다. 첫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기억하고, 현재 시점에 교육, 자격, 경력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돕는 것은 자기성찰이다. 그 결과는 어떤 역량을 보유한 경력자가 됐을 것이라 확인한다.

‘미래에 나이가 채움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라기보다는 ‘그때 이렇게 경력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이 어가고 있어요’란 말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파이팅 합시다.

며 입국장에 모여든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인물, 모스 탄을 거리낌 없이 지지하고 있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음모론과 비방, 모욕을 당당히 외치는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이자 일꾼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모욕을 퍼붓는 행동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을 향한 비판은 언제나 존재했다. 비판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당연하다. 하지만 그 비판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상식과 윤리를 넘어서는 비난과 모욕, 왜곡은 결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극우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허위선동’이자 ‘질서 파괴’다. 지금 우리는 무너진 민생, 흔들린 경제, 뒤흔든 정치를 바로 세우야 할 때다. 모두 하나가 돼도 부족할 시점에, 극우 세력들은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극우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각성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단합하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OPINION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사설

광주 ‘초등학교부 10시 출근제’ 전국화됐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교부 10시 출근제’가 전국화됐다. 정부가 이 제도를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관련 사업 예산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켰다.

‘초등학교부 10시 출근제’는 초등생 자녀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22년 1월 도입한 제도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컨대 출근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은 광주시가 해당 사업장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4년 가까이 실시된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을 줄이는 등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 유연근무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저출산 해결의 선도 모델로 사업장의 고용 유지·근로자의 돌봄 고충 완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또 경북도, 전북 전주, 경기 수원 등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하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될 정도였다.

광주시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잡은 이를 전국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등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발전시켜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유아·초·중·고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의 동반상승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광주에서 시작된 선진행정이 전국화되며 빛을 받고 있는 것이다.

30주년 된 ‘장성아카데미’ 계속 이어지길

전국 최장수 공개 강연 프로그램인 ‘장성아카데미’가 오는 15일로 30주년을 맞는다고 한다.

장성군은 이를 기념해 이날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함께한 30년,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기념식과 특별 강연을 열기로 했다.

꾸준한 봉사과 기부 활동으로 잘 알려진 가수 선이 강연자로 나서 ‘나눔, 사랑을 잇다’를 주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 할 예정이다.

이어 평생교육 분야 권위자인 강대중 서울대 교수가 ‘배움,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지역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고 평생학습사회 실현 방향을 제시한다.

1995년 9월 15일 문을 연 ‘장성아카데미’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회교육의 장이었다.

군민,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등이 참여해 강연과 토론을 통해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과 자치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등 숏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쉽 없이 달려왔다. 현재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 열리는 강연은 지금까지 1200회가 넘었으며 누적 수강 인원은 53만여명에 이를 정도다.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총리와 장·차관, 대기업 회장과 전문경영인, 대학 총·학장과 교수, 각 분야의 저명인사, 연예인 등이 강단에 섰다. 특히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국가 혁신의 기반은 교육에 있다”면서 장성아카데미를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고 한다.

실제로 장성아카데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 motto 아래 지역 평생교육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기록원과 유럽연합 오피셜월드레코드(EU QWR)로부터 ‘세계 최장기간 운영된 정기적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까지 받았다.

30년이 된 장성아카데미가 앞으로도 사람을 키우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지시 나침반으로 계속 자리매김되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8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